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생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에 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안선경¹⁾ 정익중²⁾

요약

본 연구는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생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 유형화하고, 영향요인과 부모의 미디어 이용 제한 방식을 살펴보았다.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중 초등학교 1~4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80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영향형 집단(23.2%), 평균형 집단(40.6%), 고영향형 집단(36.2%)의 3개 잠재프로파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요인은 성별과 학년, 미디어 이용 자기조절 수준, 게임 이용 시간이, 가정 및 부모요인은 부모 연령, 미디어 이용 감독, 미디어 이용 지도 및 대화, 미디어 교육 경험 유무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는 콘텐츠의 질보다는 이용 시간의 양에 초점을 두어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스마트폰 이용 시간 제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의 이질성을 규명하고, 아동친화적 미디어 환경 조성을 논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초등학생, 미디어 이용,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분석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는 소통과 정보 전달의 핵심 매개체로서,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같은 전통 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발달은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구축했다(정인숙, 2022). 미디어의 발전은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동시에, 다양한

*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구 논문 공모 선정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제9회 언론 통계 자료 활용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수정보완 하였음

1)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작용을 수반한다. 특히, 일상 미디어 시대의 확산으로 아동의 미디어 노출 빈도와 사용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선경·정익중·강진아 외, 2024; 이정원, 2022;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미디어 환경은 아동에게 새로운 자극과 정보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성인에 비해 비판적 수용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에 더욱 취약하다(김수정·구은미, 2019; 안선경·성윤희·정익중, 2023). 아동기는 외부 자극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미디어 경험은 단순히 흥미를 끄는 것을 넘어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수정·구은미, 2019; 정의철, 2013; 최민음, 2021).

이처럼 미디어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소통과 정보 전달의 도구로 기능하지만, 부정적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수용자의 특성과 미디어 유형에 따라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수용자의 측면에서 아동과 같은 미성숙한 수용자는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무분별한 콘텐츠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미디어 유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유튜브와 숏폼은 짧고 강렬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제공해 아동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정보 과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김은영·임신일, 2021; 최윤정·이종혁, 2021). 이러한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지적 피로와 주의력 감소가 발생하며, 숏폼 콘텐츠의 특성상 충동적 행동과 정서조절 능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Wang, Wang & Lei, 2023). 둘째, 게임은 아동 발달에 양면적 영향을 미치는데, 적절히 활용하면 재미와 성취감을 제공하지만, 과도한 몰입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공격적 행동을 강화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나은영·송종현, 2006). 셋째,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소통과 참여를 촉진하지만, 개방적 특성으로 인해 부정적 정보 확산의 위험이 크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익명성을 동반한 상호작용 기능은 사이버 괴롭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김지현·김하균, 2021; 정여진·손서희, 2017; Hinduja & Patchin, 2008). 넷째, 텔레비전 및 영화와 같은 시청각 매체는 특정 주제나 인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남성을 강인한 리더로, 여성을 의존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과 여성을 가사와 돌봄 역할에 한정하는 전통적 여성상을 부각함으로써 왜곡된 성 역할 인식을 심어주며(김희정, 2007), 이는 아동의 성격 형성과 사회적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성평등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Bussey & Bandura, 1999). 또한, 시청각 매체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조장할 가능성도 크다. 차별적 표현, 비속어, 은어는 수용자의 언어 습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며,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Linebarger & Vaala, 2010; McEnery & Xiao, 2004). 예를 들어, 특정 계층이나 소수 집단을 왜곡된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편견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Sommers-Flanagan & Sommers-Flanagan, 2004). 그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는 소비 욕구를 자극하며 소비 중심적 가치관과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을 조장한다. 특히 어린 자녀는 텔레비전 광고의 영향을 받아 부모에게 소유 욕구를 표현하고, 욕구에 대한 불만족이 발생할 때에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Buijzen & Valkenburg, 2003; Goldberg, Gorn & Peracchio).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미디어의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아동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폭력성과 선정성은 아동·청소년의 행동과 정서 발달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지적된다(안선경·성윤희·정익중, 2023). 아동기의 정서 안정성은 대인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폭력적 콘텐츠의 반복적인 노출은 수용자의 공격적 행동을 강화하고 폭력에 대한 둔감함과 정당화를 유발하며, 갈등 상황에서 비폭력적 해결책보다 폭력적인 방식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정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Brown, Halpern & L'Engle, 2005). 한편, 선정적 콘텐츠는 아동·청소년의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부각하는 표현은 외모 중심적 사고를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자기 성적 대상화'를 촉진한다(Menzel & Levine, 2011). 반복적으로 이상화된 외모와 몸매를 노출하는 콘텐츠는 신체 이미지 불만족과 심리적 압박을 증가시켜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Grabe, Ward, & Hyde, 2008). 선정적 콘텐츠는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남성을 힘세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는 고정관념은 남성들에게 과도한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저하를 유발한다(Grabe, Ward, & Hyde, 2008; Gültzow, Guidry & Schneider et al., 2020).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경험은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며, 이러한 영향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복합적이고 중첩적으로 나타난다.

부정적 미디어 영향은 미디어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 부모, 그리고 가정 요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 이론에 따르면, 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미시체계 중심의 가정의 특성은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에 직·간접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과 가정환경은 아동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Jordan, 2004). 아동의 개인요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영

향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안수빈·강보람·이강이, 2017; 이란·현은자, 2014). 남아는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될 경우 공격적 행동을 학습하여 이를 실제 행동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여아는 소셜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존감 저하와 심리적 불안을 경험할 위험이 크다(정지혜·박주희·임양미, 2014). 부정적 미디어 영향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화되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감소할 경우 미디어 의존이 아동의 정서적 불안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창숙·최윤정, 2023). 예컨대,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류세인·조인숙, 2015; Livingstone & Helsper, 2008). 이러한 미디어 의존은 단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서적 안정성을 저하하고 정서적 불안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한은수, 2022). 한편, 아동의 미디어 자기조절 능력은 부정적 미디어 영향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주목된다.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아동은 미디어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여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미디어 의존도의 증가로 사회적 관계의 악화와 학업 성취도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창숙·최윤정, 2019; 안정임·서윤경·김성미, 2013; 한은수, 2022). 따라서 아동이 미디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조절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아동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정환경과 부모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아동기는 부모의 온전한 양육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의 판단기준이 자신의 기준이 될 만큼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감독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며,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미디어 규칙 설정과 모니터링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Rideout, 2014). 반면,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가정에서는 미디어가 주요 양육 수단으로 자리 잡아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김미숙·배화옥, 2022). 이와 함께, 부정적 미디어 영향을 예방·완화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은 필수적이다. 부모와 자녀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수용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송원숙, 2023; 안정임·서윤경·김성미, 2013; 최윤정·이종혁, 2021). 교육을 받은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통해 적절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Gentile, Reimer & Nathanson et al., 2014). 더불어 부모의 지지는 아동의 미디어 자기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미디어 사용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면, 아동은 미디어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기조절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Livingstone & Helsper,

2008). 아동기는 발달이 가속화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부정적 미디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의 특성과 부모 및 가정환경의 역할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동친화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양한 미디어 유형과 콘텐츠가 존재하는 만큼, 부정적 영향도 단일하게 설명될 수 없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변수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을 통해 미디어와 아동 간의 영향관계를 개별 요인으로 분석해 왔으나, 이러한 접근법은 복잡하고 상호작용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차원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상중심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을 통해 아동에게 나타나는 부정적 미디어 영향의 다양한 이질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에 비해 미디어 매체 접근성과 활용, 교육기관을 통해 미디어 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은 초등학교 1~4학년생을 대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문현우·손정명·이시훈 외, 2024). 이 시기는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로 이어지는 발달의 전 단계로, 미디어 이용에 따른 영향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에 적합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교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을 유형화하여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집단 간 미디어 이용 제한 차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교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교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교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 제한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국가승인통계자료(제413002호)인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만 3~9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2,675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 경험과 이를 관찰한 내용을 토대

로 부모가 응답한 자기보고식 웹 설문조사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주요 변수에 모두 응답한 806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학생 395명(49.0%), 여학생 411명(51.0%)이며, 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 43명(5.3%), 2학년 221명(27.4%), 3학년 241명(29.9%), 4학년 241명(29.9%)이다.

2. 주요변수

가. 종속변수

초등학교 자녀가 미디어를 이용할 때 다음의 각 항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부적절한 언어(비속어, 은어 등), 콘텐츠의 선정성, 콘텐츠의 폭력성, 무분별한 광고노출, 특정 계층과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연령, 장애, 성, 인종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사이버 괴롭힘' 총 7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 범주는 '1=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 5=매우 영향을 끼친다'로 응답한 항목을 0~4로 재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미디어 영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나. 독립변수

1) 아동 관련 요인

아동 관련 요인으로 성별과 학년, 미디어 교육 경험 유무, 미디어 자기조절 정도, 미디어 이용 시간을 살펴보았다. 성별은 '0=남학생, 1=여학생'으로 더미코딩 하였고, 학년은 '1=초등학교 1학년~4=초등학교 4학년'으로 코딩하였다. 미디어 교육 경험 유무는 '0=없다, 1=있다'로 더미코딩 하였다. 미디어 이용 자기조절 정도는 텔레비전 및 유튜브 시청, 스마트폰 이용, 게임, SNS 이용 등 미디어 이용 시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평가하는 1개의 문항으로 '1=전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 2=별로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 3=보통이다, 4=대체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5=확실히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의 응답 범주를 0~4로 재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디어 자기조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미디어 이용 시간은 유튜브 및 숏폼 시청 시간, 게임 이용 시간으로, 아동이 지난 일주일 동안 유튜브 및 숏폼을 통해 콘텐츠를 하루 평균 얼마나 보았는지 묻는 각각 1개 문항이다. 게임 이용 시간은 아동이 지난 일주일 동안 게임을 하루 평균 얼마나 이용했는지 묻는 1개

의 문항이다. 위 문항에 대한 응답은 주중(월~금)과 주말(토~일)로 나누어 하루평균 시청하는 '시간'과 '분'으로 조사되었다. 평일과 주말 각 '시간'과 '분'을 모두 '분'으로 변환하여 합산한 후 각 문항(유튜브, 숏폼, 게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중앙값 미만 구간은 '0=낮은 이용 시간'으로 중앙값 이상 구간은 '1=높은 이용 시간'으로 재코딩하여 활용하였다.

2) 가정 및 부모 관련 요인

가정 및 부모와 관련된 요인은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 연령대, 미디어 교육 경험 유무, 미디어 이용 감독, 미디어 이용 지도 및 대화를 살펴보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기존 11개 응답 범주를 축소하여 '1=300만 원 미만, 2=3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3=6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4=900만 원 이상'으로 재코딩하였다. 부모 연령대는 만 나이로 조사된 값을 10세 단위로 재코딩하여 '1=20대, 2=30대, 3=40대, 4=50대, 5=60대 이상'으로 범주화하였고, 미디어 교육 경험 유무는 '0=없다, 1=있다'로 더미코딩 하였다.

미디어 이용 감독과 미디어 이용 지도 및 대화는 자녀의 미디어 지도와 관련된 경험을 묻는 문항이다. 미디어 이용 감독은 '아이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동안 옆에 있기', '아이가 무엇을 이용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총 2문항이다. 미디어 이용 지도 및 대화 문항은 '아이의 미디어 이용 경험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미디어 이용 방법(기능, 조작법 등)에 대해 설명해 주기' 등 총 5개의 문항이다. 두 변수의 응답 범주는 '1=전혀 하지 않는다, 2=거의 하지 않는다, 3=가끔한다, 4=자주한다, 5=항상한다'를 0~4로 재코딩하였다. 각 변수는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미디어 이용 감독과 미디어 이용 지도 및 대화가 잦음을 의미한다.

다. 결과변수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묻는 문항으로, 미디어 이용 시간대 제한과 시청 및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서비스 제한 여부에 대해 텔레비전 시청, 스마트폰 이용, 게임 이용 세 가지 영역으로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0=제한하지 않는다, 1=제한한다'로 더미 코딩하여 활용하였다.

3. 자료분석

가.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상 중심적 접근법(person-centered

approaches)으로 측정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 적용한다.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을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하위집단 간의 이질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잠재집단 내 연구대상들은 동질적이며 잠재집단 간에는 이질적인 특징을 띤다(Collins & Lanza, 2009; Muthén & Muthén, 2000).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채택은 정보지수와 모형의 비교검증, 분류의 질, 잠재프로파일 소속 비율과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정보지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로 구성되며, 낮은 값일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본다(Akaike, 1974; Schwarz, 1978). 모형 비교검증은 LMR-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의 p 값을 기준으로 k 개와 $k-1$ 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비교하며 유의한 모형을 선택한다(Lo, Mendell & Rubin, 2001).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Entropy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측정되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잠재프로파일 집단 분류의 정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Entropy 값이 0.8 이상일 경우, 분류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Clark, Diener & Georgellis et al., 2008). 잠재프로파일 소속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해당 집단을 의미 있는 경험을 한 집단으로 보아 적절한 잠재프로파일로 채택한다(Hill, White & Chung et al.,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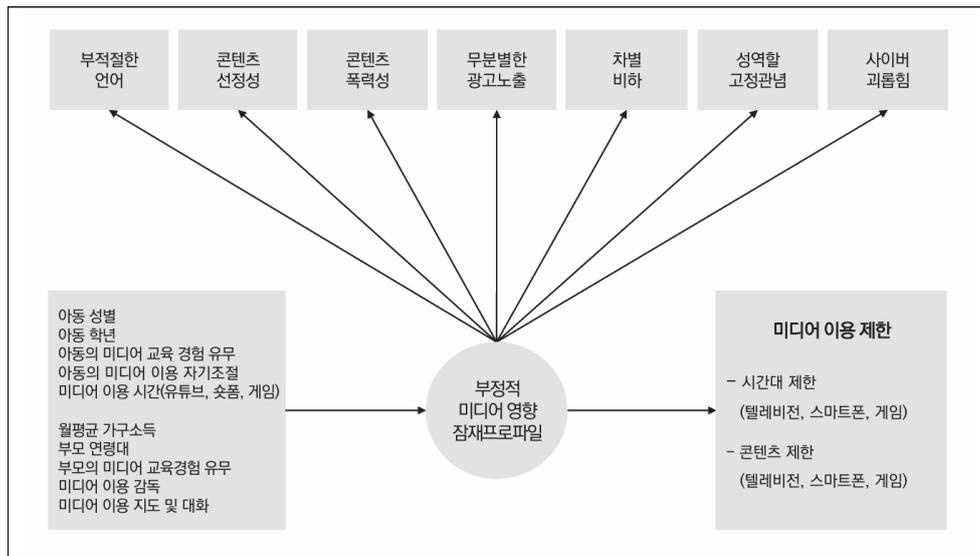
나. 분석절차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교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채택하였다.

둘째,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교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을 위해 Manual 3단계 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 분석을 통해 추정된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한 후, 두 번째 단계에 추정된 분류 오류 가능성(classification error probability)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추정된 분류 오류를 고정하여 영향요인 검증을 위해 다항로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류오류를 고려한 접근은 채택된 최적의 잠재프로파일에 대한 영향요인을 추정하더라도 잠재집단의 분류나 해석 등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Muthén & Muthén, 2000).

셋째,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교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한하는지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BCH(Bolck-Croon-Hagenaars)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 방법은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 모두에 적용 가능하며, 추정 대상 변수를 보조변수(auxiliary variable)로 처리한

뒤, 잠재집단 분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따라 각 개인에게 가중치를 부여하고 잠재집단을 다집단과 같이 분석하는 자동화(Automatic) 추정 방법이다(Bakk & Vermunt, 2016). 분석은 SPSS 27.0과 Mplus 8.1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결과

1.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 분류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교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적합도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는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낮은 값을 보였으며 2개일 때 가장 높은 값을, 6개일 때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잠재프로파일 수가 3개에서 4개로 증가할 때 정보지수 감소 폭이 둔화하는 기울기 변화를 확인하였다. Entropy 값은 모두 .8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3개일 때 .916으로 가장 높은 분류의 질을 보였다. 모든 잠재프로파일 소속 비율은 1% 이상으로 나타나, 의미 있는 집단으로 수용할 만한 분류율을 보였다. LMR-LRT와 BLRT *p*값을 통한 모형 비교 검증 결과, 모든

잠재프로파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각 잠재프로파일의 통계적 적합성을 비교하고 집단의 이질성 및 간명성,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총 3개 집단을 최적의 잠재프로파일로 채택하였다.

〈표 1〉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 적합도

(N=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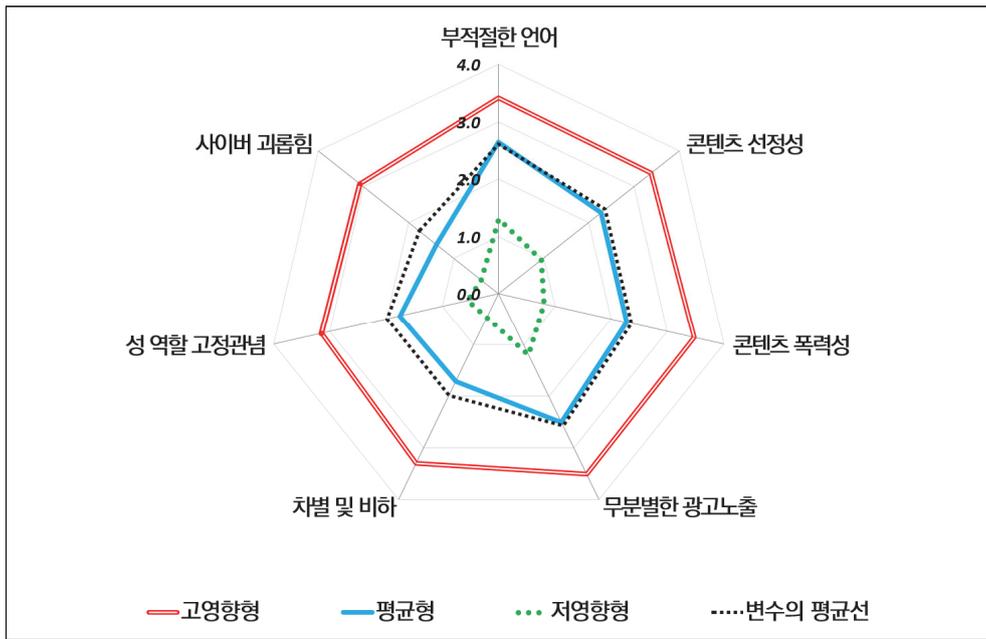
기 준	잠재프로파일 수					
	2	3	4	5	6	
정보지수	AIC	15215.805	14035.434	13672.058	13442.732	13184.091
	BIC	15319.031	14176.196	13850.357	13658.568	13437.464
	SABIC	15249.168	14080.929	13729.685	13512.491	13265.983
모형비교 검증 (p-value)	LMR-LRT	0.0000	0.0000	0.0002	0.0172	0.0005
	BLRT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분류의 질	Entropy	0.896	0.916	0.884	0.883	0.887
	1	47.6	40.6	20.5	16.6	10.8
	2	52.4	23.2	34.1	27.5	9.8
	3		36.2	27.5	0.1	19.9
	4			17.9	28.3	19.1
	5				18.6	25.1
	6					15.4

2.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의 특징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생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의 특징은 〈표 2〉, [그림 2]와 같다. 첫째, 187명(23.2%)의 가장 낮은 소속 인원을 보인 집단으로, 모든 지표에서 대체로 낮은 수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의 특징을 보여 Class 1을 저영향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327명(40.6%)의 가장 많은 소속 인원으로, 전체 연구대상이 응답한 각 지표의 평균값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 특징을 반영하여 Class 2를 평균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중 부적절한 언어, 콘텐츠의 선정성 및 폭력성, 무분별한 광고노출은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높게 나타났다. 셋째, 292명(36.2%)으로 모든 지표에서 부정적 미디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특징을 반영하여 Class 3을 고영향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특히, 무분별한 광고노출과 폭력적인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이 높았다.

〈표 2〉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 지표별 평균

지표	전체 (N=806, 100%)	Class 1 (N=187, 23.2%)	Class 2 (N=327, 40.6%)	Class 3 (N=292, 36.2%)
	M(SD)	M(SE)	M(SE)	M(SE)
부적절한 언어	2.61(1.11)	1.31 (0.09)	2.65 (0.05)	3.42 (0.05)
콘텐츠의 선정성	2.36(1.16)	0.95 (0.08)	2.27 (0.06)	3.38 (0.04)
콘텐츠의 폭력성	2.36(1.21)	0.80 (0.06)	2.27 (0.07)	3.48 (0.04)
무분별한 광고노출	2.57(1.17)	1.20 (0.09)	2.51 (0.06)	3.51 (0.04)
차별 및 비하	1.99(1.26)	0.47 (0.06)	1.71 (0.07)	3.29 (0.05)
성 역할 고정관념	1.98(1.21)	0.55 (0.07)	1.76 (0.06)	3.15 (0.05)
사이버 괴롭힘	1.76(1.31)	0.39 (0.05)	1.38 (0.06)	3.08 (0.07)



[그림 2] 부정적 미디어 영향의 잠재프로파일 특징

3.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생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아동 요인에서는 성별과 게임 이용 시간이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가정 및 부모요인에서는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 유무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요인 중 성별은 저영향형 집단은 여학생이, 평균형 집단은 남학생이, 고영향형 집단은 비슷한 성비를 보였다. 학년의 분포는 초등학교 4학년(37.3%), 3학년(29.9%), 2학년(27.4%), 1학년(5.3%) 순으로 나타났다. 1학년에서는 고영향형 집단의 빈도가 높았으며, 2학년과 3학년에서는 평균형 집단의 빈도가, 4학년에서는 고영향형 집단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디어 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은 전체 51.9%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는 저영향형과 평균형 집단은 교육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았지만, 고영향형 집단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미디어 이용 시간 중 유튜브 시청과 게임이용 시간은 고영향형, 평균형, 저영향형 집단 순으로 높은 이용 시간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스포츠 시청 시간은 저영향형과 평균형 집단의 응답 비율은 유사했으나 저영향형 집단은 높은 이용 시간의 비율이, 평균형 집단은 낮은 이용 시간의 비율이 소폭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영향형 집단은 높은 이용 시간 비율이 높았다. 가정 및 부모요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49.0%)이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부모 연령대는 40대(59.2%)와 30대(36.5%)가 높았다. 부모는 미디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63.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집단별로도 유사했다.

〈표 3〉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		전체 (N=806, 100.0%) M(SD)	저영향형 ^a (N=187, 23.2%) M(SD)	평균형 ^b (N=327, 40.6%) M(SD)	고영향형 ^c (N=292, 36.2%) M(SD)	χ^2	
성별	남학생	395(49.0)	74 (39.6)	173 (52.9)	148 (50.7)	8.978*	
	여학생	411(51.0)	113 (60.4)	154 (47.1)	144 (49.3)		
학년 (초등학교)	1학년	43(5.3)	12 (6.4)	15 (4.6)	16 (5.5)	11.995	
	2학년	221(27.4)	49 (26.2)	107 (32.7)	65 (22.3)		
	3학년	241(29.9)	63 (33.7)	92 (28.1)	86 (29.4)		
	4학년	301(37.4)	63 (33.7)	113 (34.6)	125 (42.8)		
아동 요인	미디어 교육 경험	있음	388(48.1)	84 (44.9)	157 (48.0)	147 (50.3)	1.346
	없음	418(51.9)	103 (55.1)	170 (52.0)	145 (49.7)		
미디어 이용 시간	유튜브 시청 시간	낮은 이용 시간	395(36.6)	72 (38.5)	119 (36.4)	104 (35.6)	0.420
		높은 이용 시간	511(63.4)	115 (61.5)	208 (63.6)	188 (64.4)	
	스포츠 시청 시간	낮은 이용 시간	387(48.0)	93 (49.7)	165 (50.5)	129 (44.2)	2.726
		높은 이용 시간	419(52.0)	94 (50.3)	162 (49.5)	163 (55.8)	

변 수		전체 (N=806, 100.0%) M(SD)	저영향형 ^a (N=187, 23.2%) M(SD)	평균형 ^b (N=327, 40.6%) M(SD)	고영향형 ^c (N=292, 36.2%) M(SD)	χ^2	
게임 이용 시간	낮은 이용 시간	288(35.7)	84 (44.9)	119 (36.4)	85 (29.1)	12.512**	
	높은 이용 시간	518(64.3)	103 (55.1)	208 (63.6)	207 (70.9)		
가정 및 부모 요인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16(14.4)	28 (15.0)	43 (13.2)	45 (15.4)	3.019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395(49.0)	95 (50.8)	160 (48.9)	140 (47.9)		
	6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209(25.9)	46 (24.6)	83 (25.4)	80 (27.4)		
	900만 원 이상	86(10.7)	18 (9.6)	41 (12.5)	27 (9.3)		
	부모 연령대	20대	17(2.1)	3 (1.6)	6 (1.8)	8 (2.7)	
30대	294(36.5)	61 (32.6)	119 (36.5)	114 (39.0)	8.090		
40대	477(59.2)	116 (62.0)	194 (59.3)	167 (57.3)			
50대	17(2.1)	7 (3.8)	7 (2.1)	3 (1.0)			
60대 이상	1(0.1)	-	1 (0.3)	-			
미디어 교육 경험	있음	295(36.6)	51 (27.3)	122 (37.3)	122 (41.8)	10.459**	
없음	511(63.4)	136 (72.7)	205 (62.7)	170 (58.2)			

* $p < .05$, ** $p < .01$

4.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 영향요인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교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저영향형과 평균형 집단 비교 결과, 아동이 남학생일수록, 아동의 미디어 이용 자기조절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가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을 때 저영향형보다는 평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저영향형과 고영향형 집단 비교 결과, 아동의 미디어 이용 자기조절 수준이 낮을수록, 게임 이용 시간이 높을수록, 부모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이 있고 부모의 미디어 이용 감독 수준이 낮을수록 평균형 보다는 고영향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평균형과 고영향형 집단 비교 결과, 아동이 고학년일수록, 아동의 미디어 이용 자기조절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미디어 이용 지도 및 대화가 잦을수록 평균형 보다는 고영향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정적 미디어 영향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영향요인

변 수	준거집단 : 저영향형				준거집단 : 평균형		
	평균형		고영향형		고영향형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아동 요인	아동 성별	-0.54*	0.22	-0.35	0.22	0.19	0.18
	아동 학년	-0.09	0.11	0.11	0.12	0.20*	0.10
	미디어 교육 경험 유무	-0.03	0.22	-0.02	0.22	0.00	0.19
	미디어 이용 자기조절	-0.35**	0.12	-0.55***	0.12	-0.20*	0.10
	미디어 이용 유튜브 시청 시간	-0.16	0.23	0.06	0.23	0.22	0.20
	미디어 이용 쇼폼 시청 시간	-0.04	0.24	-0.18	0.24	-0.14	0.21
	미디어 이용 게임 이용 시간	0.39	0.25	0.76**	0.25	0.36	0.21
가정 및 부모 요인	월평균 가구소득	0.18	0.13	0.12	0.13	-0.06	0.11
	부모 연령대	-0.32	0.19	-0.55**	0.18	-0.23	0.15
	미디어 교육 경험 유무	0.68**	0.24	0.89**	0.24	0.21	0.20
	미디어 이용 감독	-0.12	0.17	-0.35*	0.17	-0.23	0.15
	미디어 이용 지도 및 대화	-0.14	0.18	0.27	0.18	0.41*	0.16

* $p < .05$, ** $p < .01$, *** $p < .001$

5.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미디어 이용 제한의 차이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교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텔레비전 시청과 게임 이용의 시간대 제한 방식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 시간대 제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모는 저영향형과 고영향형 집단에 비해 평균형 집단의 자녀에게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더 많이 제한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텔레비전, 스마트폰, 게임 이용의 콘텐츠 제한 방식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5〉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미디어 이용 제한 차이

변 수	저영향형 ^a M(SE)	평균형 ^b M(SE)	고영향형 ^c M(SE)	Overall test χ^2
시간대 제한	텔레비전	0.77(0.03)	0.80(0.02)	0.766
	스마트폰	0.83(0.03)	0.91(0.02)	9.547** (b)>(a,c)
	게임	0.85(0.03)	0.90(0.02)	4.241
콘텐츠 제한	텔레비전	0.88(0.03)	0.89(0.02)	2.356
	스마트폰	0.85(0.03)	0.88(0.02)	1.963
	게임	0.89(0.02)	0.90(0.02)	2.658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생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을 유형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생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결과, 저영향형(23.2%), 평균형(40.6%), 고영향형(36.2%)의 집단으로 나타났다. 저영향형 집단(187명, 23.2%)은 부정적 미디어 영향 수준이 가장 낮았으나, 부적절한 언어와 무분별한 광고노출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평균형 집단(327명, 40.6%)은 전체 연구대상이 응답한 평균값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으며, 특히 부적절한 언어, 콘텐츠의 선정성 및 폭력성, 무분별한 광고노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향형 집단(292명, 36.2%)은 모든 지표에서 부정적 미디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별 및 비하, 성 역할 고정관념, 사이버 괴롭힘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부정적 미디어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냈다. 또한, 평균형(40.6%)과 고영향형(36.2%) 집단에 비해 저영향형(23.0%) 집단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아동기에 미디어를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각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정적 미디어 영향의 주요 지표는 부적절한 언어, 무분별한 광고 노출, 콘텐츠의 폭력성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집단 간 부정적 영향의 강도는 차이를 보이지만, 그 영향이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이 건강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가정, 교육기관, 정책 및 제도 등 다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적절한 표현으로 교정하고, 무분별한 광고 노출을 줄이기 위해 TV 시청 대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게임이나 여가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는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아동이 부정적인 콘텐츠와 광고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문현우·손정명·이시훈 외, 2024). 이러한 교육은 아동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실질적인 사례와 참여형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책 및 제도적 차원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표준화하여 모든 아동이 필수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정책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안선경·성윤희·정익중, 2023).

둘째,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생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 유형화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동요인은 성별, 학년, 미디어 이용 자기조절 수준, 게임 이용 시간

이, 가정 및 부모요인은 부모의 연령, 미디어 이용 감독과 지도, 대화, 그리고 미디어 교육 경험 유무로 나타났다. 아동이 남학생일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평균형과 고영향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고 부모의 미디어 증재 효과가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최윤정·이종혁, 2021). 초등학생 고학년 시기와 같이 사춘기로 접어드는 단계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하거나 또래 친구들과 미디어를 공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 시기에 부모가 댓글 예절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거나 유용한 콘텐츠 정보를 추천하는 대화는 아동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안정임·서윤경·김성미, 2009).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기에 예측할 수 있는 발달적 특징으로, 부정적 미디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과 함께, 가정 내·외부적으로 미취학 아동기부터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아동의 미디어 이용 자기조절은 집단 간 비교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부모의 감독이나 지도보다 아동 스스로 미디어 이용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송원숙, 2023). 한편, 게임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고영향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유튜브와 숏폼 시청 시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스마트폰이 주요 시청 매체로 사용되며, 부모의 스마트폰 시간 제한이 유튜브와 숏폼 시청 시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반면, 게임은 스마트폰, PC, 콘솔(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용되며, 매체 다양성이 게임을 통한 부정적 미디어 영향 노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정적 미디어 영향이 큰 집단에서 다양한 미디어 유형과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이용 매개체와 빈도, 이용 시간을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 한편, 아동의 미디어 교육 경험 유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부모의 지도와 관리가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Livingstone & Helsper, 2008).

가정 및 부모와 관련한 요인에서는 부모의 연령이 낮고 미디어 이용 감독 수준이 낮을수록 저영향형보다 고영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부모의 미디어 이용 지도와 대화를 나눌수록 평균형보다는 위험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미디어 지식이 높아 자녀의 지도에 긍정적이라는 기존 연구와 상반된다(조연하·배진아, 2010). 디지털 기기를 적극 활용하며 정보 습득과 소통에 익숙한 부모일수록 미디어 매체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안선

경·정익중·강진아 외, 2024).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연결성 있는 동시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미디어 교육 경험 유무는 저영향형과 평균형, 저영향형과 고영향형의 집단 비교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하였다. 미디어 교육은 매체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가정 내 갈등 관리, 지도 방안 등을 포함하며, 이를 경험한 부모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부정적 영향을 민감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송원숙, 2023; 시청자미디어재단, 2024). 이처럼 부모의 교육 경험은 미디어 영향에 민감성을 높이며, 동시에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세심히 관찰하고 지도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송원숙, 2023; 최윤정·이종혁, 2021; Cingel & Krcmar, 2013).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2023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보유율은 94.8%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10대의 경우 99.6%에 달한다(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 과거에는 가구소득에 따라 TV, 스마트폰, PC 등 기기의 보유와 활용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현재는 스마트폰이 일상 미디어 활용의 핵심 매개체로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초등학생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부모의 자녀 미디어 이용 제한 방식 분석 결과, 부모는 콘텐츠의 질적 측면보다는 이용 시간의 양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제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스마트폰 이용 시간 제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대안적인 관리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실제로 부정적 미디어 영향은 이용 시간보다 콘텐츠 특성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음에도, 부모는 시간 통제를 보다 효과적인 관리 방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정익중, 2022). 부모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앱 설치 및 접근 제한, 사용 시간 설정 등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지만, 콘텐츠 특성을 세밀히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김창숙·최윤정, 2019). 따라서 단순히 시간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호 대화를 통해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 교육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심화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부모가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부모가 인식한 초등학생 자녀의 부정적 미디어 영향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탐색했으나, 조사 데이터가 부모의 보고에 기반하고 있어 자녀의 실제 미디어 이용 현황과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모의 인식은 개인적 경험이나 미디어 교육 수준에 따라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영향을 확대 혹은 축소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관찰 데이터를 포함한 정교하고 다각적인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파악하는 목적의 데이터로, 부정적 미디어 영향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발달산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데이터를 병합하여 부정적 미디어 영향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안선경·오수경·정익중, 2024).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미디어 영향의 이질성과 부모의 미디어 이용 제한 방식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에 따른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의무화 및 부모-자녀 동시 교육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아동의 미디어 이용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교육은 여전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아 및 초등교육 과정에 체험형·실천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 발달 단계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의 의무교육에 따라 부모의 미디어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 내에서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가정 밖에서도 올바른 언어 사용, 긍정적 이미지와 메시지 교류, 안부 문화 등 미디어의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중앙 기적 공익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미디어 이용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아동친화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가정은 아동의 미디어 이용을 질적·양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플랫폼의 높은 접근성은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와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보호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 텔레비전과 라디오 같은 전통적 매체는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청소년보호법」 등을 근거로 시청 연령 등급제, 보호 시간대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등 비교적 기본적인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다(안선경·성윤희·정익중, 2023; 정의철, 2013).

202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5호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 보장의 중요

성을 강조하며, 아동의 참여, 보호, 발달을 위한 국가와 사회적 책무를 제시하였다(United Nations, 2021). 따라서 미디어 이용을 단순히 제한하는 미시적 보호주의 접근을 넘어,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적응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아동의 디지털 환경 경험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이와 같이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한 기업에서도 아동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 보호, 유해 콘텐츠 차단, 안전한 콘텐츠 추천 시스템 구축 등 아동친화적 설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 특성에 맞춘 콘텐츠 필터링, 검색 알고리즘 제한, 적정 이용 시간 알림 등과 같은 보호 기능을 플랫폼에 탑재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아동친화적인 콘텐츠 제작 및 방영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여 아동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누리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정, 교육기관, 지역사회, 정부,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가 각자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통합적 노력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숙·배화옥(2022).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71(1), 61-92.
- 김수정·구은미(2019). 양육 실제, 아동의 미디어 중독, 언어 발달의 구조 관계. *아동과 권리*, 23(4), 663-682.
- 김은영·임신일(2021). 부모가 인식하는 유아의 유튜브 시청 실태 연구. *아동교육*, 30(1), 79-101.
- 김지현·김하균(2021). 사이버불링 유형의 결정요인 (언어폭력, 폭로, 소외, 아이디 도용) 에 관한 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7(5), 117-126.
- 김창숙·최윤정(2023). 부모 중재 유형이 유아의 영상 미디어 이용조절과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젠더 & 문화*, 38(3), 93-124.
- 김희정(2007). TV 광고에 나타난 성역할 이미지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4),

7-68.

- 나은영·송종현(2006). 어린이의 인터넷·컴퓨터게임 몰입에 미치는 자기통제성의 매개 역할과 어머니의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한국언론학보*, 50(2), 116-147.
- 류세인·조인숙(2015).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9), 6180-6189.
- 문현우·손정명·이시훈·이영준(2024). 2022 개정 초등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반영된 데이터 리터러시 지식의 깊이 (Depth of Knowledge) 분석.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7(5), 89-100.
-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3).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11-B552126-000039-10). 경기도·충청북도: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송원숙(2023). 아동의 미디어 이용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6), 703-716.
- 시청자미디어재단(2024). 가정과 미디어. 미디어교육 전문지 미디어리 25호. 서울: 시청자미디어재단.
- 아동권리보장원(2024). 2024년 온라인·방송 출연 아동인권보호 모니터링 보고서(NCRC-05-24-019-01).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안선경·성윤희·정익중(20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 내용분석 -5기 방송심의소위원회 아동·청소년 관련 심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4권 2호, 181-227.]
- 안선경·오수경·정익중(2024). 조사데이터 병합을 통한 양적연구의 확장 가능성 탐색: 한부모 가구유형과 아동의 우울,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 *조사연구*, 25(4), 1-33.
- 안선경·정익중·강진아·김소연(2024).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전이관계. *보건사회연구*, 44(2), 311-335.
- 안수빈·강보람·이강이(2017).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38(2), 191-204.
- 안정임·서윤경·김성미(2013).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인과 부모의 중재 행위, 아동의 이용 조절 인식간의 상관관계. *언론과학연구*, 13(2), 161-192.
- 이란·현은자(2014). 디지털 시대의 아동 미디어 관련 연구동향 분석. *아동학회지*, 35(4), 17-40.
- 이정원(2022).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 *이슈페이퍼*, 2022-05, 1-2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정여진·손서희(2017).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35(2), 1-16.
- 정의철(2013).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 심의와 적극적 규제정책 연구. *한국언론학보*, 57(5), 423-447.

- 정익중(2022).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활용의 명과 암. *청주복지포럼*, 13, 4-14.
- 정인숙(2022). 미디어 플랫폼의 이해. 서울: 김복스 캠퍼스.
- 정지혜·박주희·임양미(2014). 초등학교 남아의 인터넷 폭력게임 사용시간과 게임과몰입정도가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4), 41-59.
- 조연하·배진아(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가정 내 미디어 이용중재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13), 37-74.
- 최민음(2021). 부모가 바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특성이 공영방송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6), 207-217.
- 최윤정·이종혁(2021). 부모 중재와 미디어 교육이 청소년 유튜브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학년에 따른 효과의 차이 분석. *방송통신연구*, 113, 141-171.
- 한국언론진흥재단(2023).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조사분석 2023-04).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은수(2022).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인문사회* 21, 13(2), 2605-2618.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 Bakk, Z., & Vermunt, J. K. (2016). Robustness of stepwise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ntinuous distal outcom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3(1), 20-31.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J. D., Halpern, C. T., & L'Engle, K. L. (2005). Mass media as a sexual super peer for early maturing girl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6(5), 420-427.
- Buijzen, M., & Valkenburg, P. M. (2003). The unintended effects of television advertising: A parent-child survey. *Communication Research*, 30(5), 483-503.
- Bussey, K., & Bandura, A. (1999). Social cognitive theory of gender development and differentiation. *Psychological review*, 106(4), 676-713.
- Cingel, D. P., & Krcmar, M. (2013). Predicting media use in very young children: The role of demographics and parent attitudes. *Communication Studies*, 64(4), 374-394.
- Clark, A. E., Diener, E., Georgellis, Y., & Lucas, R. E. (2008). Lags and leads in life satisfaction: A test of the baseline hypothesis. *The Economic Journal*,

118529), F222-F243.

- Collins, L. M., & Lanza, S. T. (2009).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Gentile, D. A., Reimer, R. A., Nathanson, A., Walsh, D. A., & Eisenmann, J. C. (2014). Protective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of children's media use: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Pediatrics, 168*(5), 479-484.
- Goldberg, M. E., Gorn, G. J., Peracchio, L. A., & Bamossy, G. (2003). Understanding materialism among youth.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3*(3), 278-288.
- Grabe, S., Ward, L. M., & Hyde, J. S. (2008). The role of the media in body image concerns among women: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and correlatio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4*(3), 460-476.
- Gültzow, T., Guidry, J. P., Schneider, F., & Hoving, C. (2020). Male body image portrayals on Instagram.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3*(5), 281-289.
- Hill, K. G., White, H. R., Chung, I. J., Hawkins, J. D., & Catalano, R. F. (2000). Early adult outcomes of adolescent binge drinking: Person-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of binge drinking trajectori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92-901.
- Hinduja, S., & Patchin, J. W. (2008).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29*(2), 129-156.
- Jordan, A. (2004). The role of media in children's develop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25*(3), 196-206.
- Linebarger, D. L., & Vaala, S. E. (2010). Screen media and language development in infants and toddlers: An ecologic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30*(2), 176-202.
- Livingstone, S., & Helsper, E. J. (2008).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 & Electronic Media, 52*, 309-329.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McEnery, A., & Xiao, Z. (2004). Swearing in modern British English: The case of fuck in the BNC. *Language and Literature*, 13(3), 235-268.
- Menzel, J. E., & Levine, M. P. (2011). Self-objectification in women: Causes, consequences, and counteraction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63-186.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Rideout, V. (2014). *Learning at home: Families' educational media use in America*. In Joan Ganz Cooney Center at Sesame Workshop. NY: Joan Ganz Cooney Center. <https://eric.ed.gov/?id=ED555586>.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 Sommers-Flanagan, J., & Sommers-Flanagan, R. (2004).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heories in Context and Practice (3r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United Nations. (2021) General comment No. 25 (2021)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general-comment-no-25-2021-childrens-rights-relation>
- Wang, J., Wang, M., & Lei, L. (2023). Longitudinal links among paternal and maternal harsh parenting, adolescent emotional dysregulation and short-form video addiction. *Child Abuse & Neglect*, 141, 106236.

- 논문접수: 11월 5일 / 수정본 접수 12월 7일 / 게재 승인 12월 20일
- 교신저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chung@ewha.ac.kr

Abstract

Latent profile analysis of negative media influences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as perceived by parents

Seon Kyeong Ahn and Ick-Joong Chung

This study classified the latent profiles of negative media influences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as perceived by parents and verified the influencing factors. It also verified how parents controlled their children's media use among group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ata from 806 parents raising children in the first to four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during the 2023 Korean Children and Media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ee latent profiles are classified: low influence (23.2%), average (40.6%), and high influence (36.2%). Second, among the latent profile influencing factors, sex, grade, level of self-regulation of media use, and game-use time were verified as factors related to children. Family- and parent-related factors were identified as parental age, media use supervision, media use guidance and conversation, and media education experience. Third, parents tended to control their children's media use by focusing on the quantity of time rather than the quality of cont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verifies the heterogeneity of negative media influences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child-friendly media environments.

Keyword: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dia use, Negative media influence, Latent profile analysis